

중년이혼

강정실

타주(州)에 있는 친구의 이혼 소식이 날아들었다. 몇몇 친구들이 급히 모여 그 아파트를 찾아 갔더니 두 부부는 보이지 않고 막내딸만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울고 있었다고 한다. 잉꼬부부로 소문난 그들이 이혼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표면상으로는 사업부도라고 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단짝으로 붙어 다녔고, 그가 군에 입대하자 그녀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면회를 가곤 하던, 대학 내에서도 유별났던 사이였다. 이후, 그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 와서 부부가 같이 식당도 했고 옷가게도 했었다. 결혼한 지 30여 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부산 출생. 『수필시대』 및 『에세이문학』 등단. 한국 및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 및 재미한인사진협회 회원.

자식도 셋이나 된다. 큰애는 아마 결혼할 나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급증하던 이혼은 2004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2006년 전체 이혼부부는 전년대보다 2.7% 줄었지만, 45~49세는 10.1%, 50~54세는 16.9%가 늘었다. 이렇게 늘고 있는 4,50대의 중년 이혼자가 전체 이혼자의 70%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문제, 실직, 상습적인 폭력, 외도, 사업부도, 성격차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의 독립적 경제능력 등으로 갈라서고 있다.

이렇게 중년 이혼은 특정 계층의 소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이 개인의 '삶의 실패'로 간주하는 사회적 시각에서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부부는 '평생의 반려자'라는 절대적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다들 성장 배경과 성격, 성(性)이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 애들을 낳고 키우며 한평생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부기간에 간섭받기를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안과 밖은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상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갈등과 미움 등을 긴 세월에도 삭히지 못하고 또 다른 자유를 갈망, 과거라는 굴레를 시대의 변화에 쉽게 편승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길가메쉬’(Gilgamish Epic)의 서사시(敍事詩)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즐기며, 하고 싶은 것 다하고 후회 없이 살아라. 돌아서면 남이 되고 만다. 또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

니 살아 있을 때, 아내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라'

이 말은 3000여 년 전에도 부부는 운명으로 혼합된 계산 불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죽음 이외의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허무주의(虛無主義)에 기인된 것인지도 모른다. 정말 부부 사이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자연과 역사가 풀어 낼 수 없는 수레바퀴일까?

솔로몬의 비관론(悲觀論)에도 두 가지 사상이 나타나 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힘과 지능이다. 마음이 답답할 때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다보면 하나님의 예정설(豫定說)은 허물어지고, 솔직히 심한 갈증만 느끼게 된다. 아마도 여기에는 그 친구의 생활이 가정과 신앙생활을 우선시켰기에 그럴 성싶다.

언젠가 나는 그 친구에게 “너희는 매일 같이 둘이 붙어 생활을 하니 좋기도 하겠지만 싸울 일도 많이 생기지?” 하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문의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쓸쓸해지는 것이 싫고 아내가 아파하는 것이 보기 싫어 부부싸움은 안 한다. 우린 모든 걸 다 공감하면서 살아”라고.. 그의 대답이 약간은 예상 밖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래, 아이들에게 입힐 옷 사이즈와 청바지 라벨 하나에도 같이 공감하며 호흡하는 삶이 사랑일 거야”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부 사랑을 은근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기에 그의 이혼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그 친구의 정확한 이혼 내용은 모르지만, 남도 아닌 부부가 갈라서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랐으리라 생각된다. 이혼이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이다. 공감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지금도 그

들은 고통과 분노의 시간,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외로움과 고립이 뒤엉킨 수많은 시간들을 곱씹고 있을 것이다.

2. 30년간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혼하자!’고 샅대질하며 악다구니 안 해 본 부부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자식 때문에’, ‘서로가 불쌍해지니까’, ‘용기가 없어서’라는 등의 맹목적(?)인 삶의 이치와 사회적 체면이 깔려 있기에 서로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힘이 들수록 걸음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좋은 싫든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처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자잘한 부부싸움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 그 속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절대명제의 커다란 보석이 숨겨져 있기에 말이다.

모가지가 길어서 행복한 짐승이여!

김우영

시카고 북부엔 노스 팍 빌리지 센터가 있고, 그 안에는 노인 아파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공공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전에는 결핵 요양원이었다고 한다. 아내가 그곳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 몇 분을 돌보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내려준 다음,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의 자연을 즐기곤 한다.

헌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고 참으로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한 마리의 어미사슴과 두 마리의 새끼사슴이 나들이를 나온 듯, 커다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평화스럽다고 느끼면서 나는 한참 동안 사슴 가족을 지켜보았다. 그들 사



미주 중앙일보 수필 입상, 해외문학 수필 신인상. 저서로는 『생명과 자유의 만남을 위하여』(1995년), 『의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2006년),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유』(2006년). 현재는 월간 『생명과 자유』(1996년 창간) 편집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숨 가족 옆엔 옛날에 교회당으로 사용된 빨간 벽돌 건물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가만히 서 있고, 종각에 달려 있는 종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작아서 그 자체가 침묵이다. 그 교회당 모퉁이엔 향나무 숲이 우거져 가지들이 건물 한 모퉁이를 온통 뒤덮어 밖에서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니 숲속이 곧 비밀상자이다. 그 숲에서 10미터쯤 떨어진 곳엔 원추형의 커다란 나무가 서 있다. 펼쳐진 나뭇가지의 아랫도리의 지름은 10미터 정도, 높이는 2층 건물보다 조금 더 높은 나무군락인데 그 나무군락 전체의 모습이 커다란 종을 땅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바로 그 종 모양의 나무 밑에서 어미 사슴과 새끼 두 마리가 여유 있게, 누구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로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처음엔 그들이 모두 풀을 뜯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새끼 두 마리가 어미에게 몸을 비벼가며 한 마리는 젖을 빨고 다른 한 마리는 젖을 차지하지 못해 보채기만 했는데, 그렇게 젖을 빨지 못하던 새끼가 오히려 어미에게 쫓겨 도망가는 걸 보았다.

의붓자식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미에게서 쫓겨난 새끼는 천천히 걸어가더니 2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얼마간 풀을 뜯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 마치 명절에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배하듯 앞 두 다리를 구부리고 몸을 낮추어 풀밭에 혼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조금 전에 빨려고 했던 엄마의 젖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마치 고독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는 어미나 다른 새끼에게뿐만 아니라, 약 20미터쯤 떨어진 벤치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내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입눌림만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젖을 빨던 한 마리 새끼와 그 어미는 정답게 동행하며 풀을 뜯기도 하고, 긴 모가지를 빼고 나뭇잎을 뜯으면서 천천히 거닐었다. 먼저 쫓겨나 풀밭에 몸을 낮추고 앉아 있는 그 새끼 옆을 지나가면서

도 눈길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입질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의 옆을 지나친 어미와 새끼 사슴은 계속 풀을 뜯으며 배를 채우고 있는데, 다른 한 마리의 새끼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해 보였다.

너무나 한가로이 앉아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손뼉을 쳐도 그저 두 귀를 쫓긋 세우고, 마지못해 귀찮은 듯 고개를 살짝 돌려 한번 바라볼 뿐, 계속 나를 외면하고 입눌림만 계속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혹시 내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기를 바라는 내 속마음을 받아주었는지 모른다. 잠시 후에 어떤 노인이 자기 옆을 지나갔지만, 그 노인에게조차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근처 도로에선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울창한 나무숲에선 매미 소리도 요란하고, 무엇에 쫓기듯 방정맞게 뛰어다니는 다람쥐들의 움직임도 부산했지만, 그 어느 것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그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모가지가 긴 엄마와 쌍둥이 형제인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을까, 무척 평안해 보였다.

그렇게 쳐다보길 30분쯤 지났을까, 계속 어미를 따라다니던 한 마리의 새끼가 어미를 떠나서 혼자 앉아 있는 새끼에게 다가오더니 주변의 풀을 조금 뜯는 시늉을 하다가 무언가 메시지를 다 전했다. 그 새끼 사슴은 어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더니 교회당 옆에 있는 향나무 덩굴 속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그들 세 식구의 보금자리가 아닌가 싶었다. 어쩌면 그들 쌍둥이가 그 숲 속에서 태어났으리라. 조금 시간이 흘렀나 싶더니 여태껏 혼자 앉아 있던 그 새끼사슴이 어미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아마도 조금 전에 다른 새끼가 전해준 메시지에 뒤늦게, 아니 여유를 갖고 반응을 보인 것인지 모른다. 어쩌면 엄마 사슴이 자기 옆에서 오랫동안 풀을 뜯던 새끼에게 '너는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네 형(혹

은 언니)에게 가서 엄마한테로 오라고 하렴!’ 이렇게 전하도록 심부름을 보낸 것 같았다.

그동안 어미사슴이 먼저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언가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먹이는 동안 다른 한 마리 새끼사슴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마음 폭 놓고 쉬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쌍둥이 엄마가 아무리 젖이 두 개라고 해도 한꺼번에 양쪽에 젖을 물리고 먹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미사슴의 타고난 새끼 사랑과 육아의 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슴을 노래한 노천명의 시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라는 구절이 있지만, 모가지가 긴 어미사슴은 내게 전혀 다르게 보였다. 사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면 모가지가 길어야 할 거란 생각 때문이다. 모가지가 길어서 사랑스럽고 행복한 짐승이다. 어미로서 새끼를 보호하려는 사슴의 몸짓 중에 모가지를 길게 빼서 주변을 살피는 일이 종종 되풀이되는 걸 보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 새끼들은 고개를 길게 빼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린 사슴들은 고개를 길게 빼서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다. 나무 잎이나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를 제외하곤 모가지를 길게 빼고 주변을 살피는 일은 어미에게 다 맡기고 안심하는 듯 했다. 엄마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열심히 자기 배를 채우면 된다. 어미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 때문에 모가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어느 날 오후였다. 예전과 똑같은 벤치에 잠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 같아 몸을 일으켜보니, 지난번에 엄마에게 쫓겨나 천대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새끼사슴 한 마리가 벤치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일어나 그 새끼사슴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나를 똑바로 마주보고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 눈의 순진무구함은 무엇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 노안으로 흐리멍텅해진 내 눈에 비할 바가 전혀 아니었다. 다가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마치 무슨 일이냐는 듯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서 향나무 숲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 숲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 새끼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오른쪽 뒷발에 상처가 나서 지난번에 절룩거리던 불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거의 완쾌 되었는지 오늘은 걸음걸이가 한결 나아 보였다. 몸에 흰점도 많이 빠진 걸 보면 털갈이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사슴은 새끼일 때는 몸에 흰 얼룩점이 박혀 있고, 털 색깔도 어미와는 달리 밝은 갈색이지만, 크면서 진한 회색으로 변해서 사슴 특유의 고상하고 점잖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마도 어미사슴은 새끼들의 이런 외형의 변화를 보면서 언제 젖을 떼고 자기 새끼들을 독립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하는지 모른다. 몸이 자랄수록 그의 모가지도 어미나 혹은 아버지처럼 길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수컷이라면 어미와는 달리 빨도 자라게 될 것이고, 그 관을 한껏 뿔내면서 짝을 찾아 나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론 앞을 가로 막는 자들을 물리치면서도 자신의 여리고 순진한 성품을 지켜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인은 뿔 달린 사슴 수컷을 노래했다.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라고 부러운 듯 말이다. 그러나 수사슴은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읽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슬픈 모가지를 하고/먼데 산을 쳐다본다’라는 표현에서 슬픔, 고독, 혹은 우수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나는 뿔 없는 어미사슴의 새끼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돋보였다. 사실 어미사슴의 긴 모가지는 마치 깨어 있는 자세로 성곽을 지키는 파수꾼의 늠름함을 연상시켰고, 이따금 긴 모가지를 빼고

주변을 두루 살필 때는 새끼를 돌보는 어미사슴의 모성애가 더욱 진하게 풍겨나기까지 했다. 사슴의 긴 모가지는 결코 향수를 즐기거나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다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기 위한 애수에 찬 몸동작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사랑하는 새끼들을 위험에서 지키려는 의지적인 행복한 몸짓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컴퓨터 세대를 바라보며

김주원

지난 2년간 한국으로부터 젊고 유명한 20대 여성들이 자살해 죽는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있다. 1년에 만여 명이 자살해 세계적으로 오명을 떨치는 한국에서 이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두어 달 전 탤런트 정다빈 양의 자살 소식은 우리 가족이 모두 좋아했던 배우라서 충격적이었다. 티 없는 천사표 미소로 방송가에서 상당히 '똥'고 알려진 그녀의 죽음은 2년 전 여배우 이은주와 가수 Y양, 그리고 삼성그룹 이 회장 딸의 자살 사건과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세계에서는 젊은 나이에 꽤 성



1980년대 초반 미국에 이사하여 개인사업 종사. 2006년 한국에서 『좋은 문학』으로 수필부문 등단. 20대 중반의 두 아들과 아내와 오래곤주 포틀랜드에서 거주.

공한 유명인들이고 특히 이회장의 딸은 2천억이 넘는 한국 최고 부자 상속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도대체 20대 중반의 나이에 삶에 대해 얼마나 절망했기에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서둘러 떠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오직 어느 식귀처럼 “세상 소풍 끝나고 돌아간” 고인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아 있는 우리가 어찌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그들의 최후 순간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단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 부나 명성이 삶에 있어서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는 부, 출세, 성공, 명성, 인기 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정신의 고귀함보다는 천박한 물질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나마 정직하게 땀 흘려 얻으려 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지길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6~7년 전 동경대 총장 하스미 시게히코 씨가 한국에 학술 세미나차 왔다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현대교육은 지나치게 컴퓨터 위주의 기술문명만 강조하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고갈 내지 결핍으로 신축성을 잃어 결국 인류문화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역사 속에서의 일본은 침략을 일삼고 수상들까지 역사를 날조, 왜곡하는 거짓말쟁이 들이지만 이 동경대 총장의 말은 우리나라 대학 총장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다. 백년대계에는 관심도 없이 감투를 원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의 교육자들도 어서 이 심각한 현실을 깨닫고 젊은이들의 정신교육에 보다 헌신해야 할 것이다.

“손끝에 모든 정보를(All information on your finger tips)”이라는 목표아래 ‘신속, 편리’라는 현대인의 취약점을 노려 사업의 키포인트

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가는 컴퓨터왕국의 큰손들 ‘빌게이츠, 스티븐 잡, 마이클 델’ 등도 황폐한 젊은이들을 만든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컴퓨터를 현대인의 친구로, 선생으로 만들어 인간을 컴퓨터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다. TV가 현대인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컴퓨터는 인간을 몽유병자로 만들어 판단력과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현대인, 젊은 세대들의 정신세계를 컴퓨터로 파괴하여 엄청난 부를 쌓아올린 이 컴퓨터 큰손들을 정신문화의 파괴자로, 도덕적, 윤리적, 인류사회적 책임을 묻는 재판에 당장 회부하고 싶다.

컴퓨터 없이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매우 불행했을까? 서서히 느끼게, 조금 불편하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컴퓨터가 도입되고 우리들의 삶은 성급하고 인내와 관용이 없어졌고, 극단적인 이기심과 서로를 미워하고 인간끼리의 따뜻한 체온과 대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 되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넘쳐흐르는 지식, 정보 그리고 졸업장, 학위가 아니라 삶의 진솔한 깊이가 있는 지혜일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교육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나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이솝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마디로 EQ(감성지수) 위주의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졸업장 나열 위주의 교육이란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필요한 소품이요, 화장품일 뿐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나이가 들수록 동양의 철인 노자나 장자, 서양의 루소가 역설했던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온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먼 미래를 내다본 지혜의 산물이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만물의 영장 운운하며 똑똑한 척 하는 인간들은 컴퓨터가 지배하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발전, 개발,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 세상을 부자, 성공, 출세만 찾아 헤매

는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만 따지는,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인조인간, 물질 중심 세상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현재 밀려오고 있는 대부분의 자연 재앙, 천재지변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과학과 지식만 믿는 교만과 탐욕, 허영심이 발전, 개발 위주로 자연에 역행하며 살아온 결과로 빚어진 당연한 인과응보다.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자.

지구촌 곳곳에서 세기말적인 징후가 느껴짐은 오직 나 혼자만의 기우일까. 한창 젊음을 구가하며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들려줘야 할 유능한 젊은이들이 자살이라니 웬 말인가. 젊은 세대들이 물질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조금은 모자란 듯이, 서투르게, 어눌하게, 바보처럼 살고 싶다. 컴맹이면 어떠랴. 옛날이 그립다.

필립스 콜렉션(The Phillips Collection)

이상옥

벌써 작년 3월이었으니까, 일 년이 다 돼 가는군요. 그때 나는 내 사랑하는 누님과 함께 작은형님이 사시는 워싱턴 디씨 근교인 알링턴 버지나아를 방문 중이었어요. 이유는 다발성골수종양이란 암으로 투병중이신 작은아주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서 부랴부랴 정신 없이 비행기표를 구해 간 거였지요. 도착하여 보니 다행히 작은아주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해 줬어요. 이유야 어찌 됐든, 아주머니의 미소를 보게 되어 누님과 나는 한시름 놓고 밤을 새워 아주머니와 긴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죠.



2006년 『수필시대』로 등단. 2006년 《미주중앙일보》 논픽션 입상.
<http://myhome.mijumunhak.com/matthewyi>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시카고에 귀환하게 되어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집 안에서 머물며 아주머니와 이야기만 하기도 그렇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오늘 토요일, 날씨도 푸근하다니까 근처를 한 바퀴 돌고오라며 내 등을 떠미셨어요. 이미 여러 차례 이곳의 볼 만한 곳은 다 다녀왔지만, 얼른 밖에 나가 워싱턴 포스트지를 사다가 그중 문화와 연예면을 들쳐보았답니다. 그리고 저 필립스 컬렉션의 기사를 읽고 누님과 오랜 만에 테이트를 하게 됐어요.

작은형님이 우리를 워싱턴 디씨 중심가에 내려 주시고 떠나셨지요. 이른 봄, 하얀 백목련이 봉오리를 막 내밀기 시작한 때 나는 누님의 팔장을 끼고 오랜 만에 그 옛날처럼 워싱턴 디씨의 변화를 걸었답니다. 아직도 봄 바람치고는 서늘한 바람이 누님의 머리를 날렸지만, 누님도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얼마 걷지 않아 그곳에 도착했답니다.

America's First Museum of Modern Art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워싱턴 디씨는 한마디로 역사의 현장을 옛날 것 그대로 잘 보존하는 관계로 산뜻하고 편리한 새 건물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옛건물에 현대적인 시설을 부착하여 그 사이를 잇는 좁은 통로, 그리고 이층 아래 층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곳이더군요. 그날은 미국의 근대 화가인 Milton Avery의 작품전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밀톤의 작품에 대한 나의 느낌이 아니고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인과 그들의 우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톤이 아주 무명시절, 당시 유명한 음악인으로 루이 카프만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인 아넷트와 (모두 독일계열의 미국인) 우연히 밀톤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생겼대요. 그들은 밀톤을 좋아하기 시작하여 그 무명 작가의 작품을 고가로 매입하기 시작했죠. 이제 밀톤은 서서히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시작하며 멋진 친구 카프만 부부를 사귀게 되

었습니다.

그렇죠, 카프만을 통해 밀톤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밀톤은 그런 이유로 작품에만 온 정신을 쏟을 수 있어 어쩌면 더 멋진 여유를 소지한 자신의 영혼을 담은 작품들을 그렸을 거예요. 훌륭한 작가를 발견하여 무언가 자신을 사랑해준 사회에 보답하려는 카프만은 정말 훌륭한 예술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금을 들여 수집한 밀톤의 작품들을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밀톤을 사랑하는 팬이 되길 바라며 모두 사회에 기증했고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준 사람을 위해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나는 가끔 우리 동포 사회를 생각한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준 이 사회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많은 동포들 말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해서 자신이 한 좋은 일에 먹물을 끼얹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저런 카프만 같은 사람이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출현하여 멋진 일을 찾아 나선다면 말이지요. 그런 일로 자신은 존경받는 동포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그가 발견한 위대한 예술인도 그렇게 또 다른 멋진 예술인을 찾아 나선다는 전통을 만들 텐데!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우리 코리언-아메리칸 때문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그날, 나는 또 어느 훌륭한 인간의 살아간 족적을 음미하며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맑고 깨끗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감 비슷한 걸 느꼈답니다.

또한 나는 그곳에서 카프만을 닮은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기증한 유명한 대가들의 걸작품들을 누님과 오래오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명창(名唱)들의 절창(絶唱)

이정아

한국의 겨울 방학기간인 요즈음 이곳엔 방문객들이 많다. 학생들이 어학연수와 체험학습을 오고 교수님들도 방학을 이용하여 특강차 많이들 오신다. 지난주엔 이화여대의 인문대 학장이셨던 김현자 교수가 세미나를 하셨고, 수필가 서종남교수의 세계역사 기행단인 문인 열 분이 남미로 가시는 길에 들러 가셨다. 동부에 초청 강연차 오신 수필가 정목일 선생님과 허형만 교수님도 엘에이를 잠시 다녀가셨다. 작년에 소설가 김훈 선생의 강연회도 있었으니, 조금 부지런하기만 하면 좋은 강연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이곳에 사는 즐거움 중 하나이다.



본명 임정아. 이화여대 졸업. 한국수필 작가회 회원. 팬클럽 한국본부, 재미수필가협회 이사. 피오피코 도서관 후원회장 역임. 1992년 교민 백일장 장원, 1997년 『한국수필』로 등단. 제2회 해외 『한국수필』 문학상, 2007년 미주 팬문학상 수상. 수필집 2004년 『낮선 숲을 지나며』, 2007년 『선물』. <http://bsle.kll.co.kr>

다른 분들이 주관한 행사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서, 여행도 함께 가고 문학 세미나도 들을 수 있는 황금의 찬스가 있었다. 마침 이곳이 우기여서 공사를 쉬던 차였기에 회사에 지장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정목일 선생님과 허형만 시인께서 하시는 특강을 들었다. 나바호 인디안의 성지인 모뉴먼트 밸리에서 듣는 강의는 그 성지의 정기까지 더해진 탓인지 더 좋았다. 거대한 붉은 바위지대인 자연 앞에서 점에 불과한 사람들은 그 위용에 압도되었다. 가이드 말로는 180million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니 1억 8천만 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나바호 모래로 만들어진 핑크빛 파웰 호수의 캐년도 장관이었다. 10년 전 구경 왔을 땐 그저 멋도 모르고 탄성만 지르던 것이 이번엔 호수의 맑은 물 속도 들여다보고, 모뉴먼트 밸리의 머드팩 같은 흙도 만져 볼 수 있었다.

고은 시인의 시처럼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새로운 곳을 이곳저곳 다니는 재미도 흥미롭지만, 같은 곳을 또 갈망정 풍광을 세밀히 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한다. 익숙해진 길에선 기어 다니는 개미도 관찰할 여유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내 마음과 같아 감탄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개척자적인 정신이 부족한 나는, 같은 길을 여러 차례 오가며 들꽃도 보고 벌레도 보는 것이 더 즐겁다. 이번 여행이 꼭 그랬다. 같은 풍물을 세 번째 보고, 정목일 선생님의 비슷한 강의를 다시 들었건만 처음인 듯 신선하고 이해가 잘되었다. 허형만 시인이 자작시인 '아버지'를 부를 때는, 이미 장사익을 통해 들은 적이 있건만 더 유장하고 슬펐다. 지은이가 라이브로 하는 노래는 절창(絶唱)이었다.

조금의 안면이 있던 수필교실 수향(隨香) 멤버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분들의 배려가 황송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남에게 베풀며 살리라 속으로 다짐했다. 문학이 매개가 되는 모임은 격이 있고 마음이 편하다. 피천득 선생님과 상견례하실 때 3배를 하셨다는 정목일 선생님은 문단선배가 아닌 신으로 여기고 예를 갖추셨다고 한다. 피천득 선생님의 서정수필 계보를 잇는 정목일 선생님도 내게는 신처럼 어려운 분이시다. 서정의 계보도 아닌 나는 용기가 없어 마음속으로만 3배 하였다. 선생님처럼 마음속에 거울을 두고 샘을 두고 솟돌을 품고, 비추고 닦고 갈면서 구도자와 같이 문학의 길로 가면 문학의 신이 내게도 임할 것인가? 거미줄처럼 나오는 대로 쉽게 쉽게만 썼던 내 글이 문득 부끄러워졌다.

여행 동안 이곳 문단의 어른이신 고원 시인에게서 소천하셨다. 친정 아버지의 친구이시기도 한 시인을 어려워져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문인들의 행사장에서 뵈면 친구의 딸이라며 아는 체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는데 말이다. 원로 시인은 가셨어도 새내기 문인들은 새로운 등단을 하면서 문학은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다. 수향의 두 분도 등단을 하셔서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문학의 맥을 잇는 데 일조를 하실 것이다.

여행을 다녀오니 나태주 시인이 보내 주신 소포가 도착해 있었다. 포장을 벗길 때마다 그 정성에 눈물이 났다. 성치 앓으신 몸으로 챙겨 보내신 모든 것이 감동이었다.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문학에 감사했다. 이런 파스함은 시보다도 수필보다도 더 아름답다. 내가 쓰는 사소한 글이 문학인지 아닌지도 나는 아직 분간 하질 못한다. 보잘 것 없는 글을 쓰는 것도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나 글을 포기하지는 않

을 것이다. 명창들을 존경하다 보면, 죽기 전에 절창 한편 흉내낼 수 있으려나 감히 소원해 본다. 글과 친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밤이다.

친구

이초혜

아득히 먼 곳에/오래도록 헤어져 살아도/한 뿌리로 엉겨 있어
과 가지는 변했어도/그 뿌리, 그 향기 한결 같아라/하얗게 서리 내리
는 시절을/맑은 웃음소리로 날려 보내고/단발머리 소녀시절/꿈결인
양 되찾던/우리들의 시간

여행 길에서 만났던/저 사막 가운데/우뚝 솟은/만년설 덮인/산봉
우리처럼/우리의 뿌리 깊은 우정/영원토록 의연하리라.

오늘 아침, 친구들은 두 주 가까운 이곳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미국방외국어대학 한국어교수 역임.
시인 『문학세계』-한국, 시조작가 『시조문학』-한국, 수필가 『기독교문학』.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제2회 해외동포창작문학상 수상. 시집 『창
밖엔 치자꽃이』.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항까지 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사랑하는 두 친구를 힘껏 안으며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다.

“J야, H야, 고맙다! 먼길 와 주어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잔디 위에서 바라보다가 석별의 정에 겨워 나는 꽃밭으로 다가갔다. 귀엽고 사랑스런 색색가지 꽃송이들이 따가운 로스앤젤레스의 가을별 속에서 목이 마른지 여름과는 달리 까칠한 모습들이기에 시원스런 물줄기로 흠뻑 물을 먹여 주면서 맘 속으로는 친구들의 안전한 귀가를 기도했다.

생각하면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초등학교와 여고동창생인 H와 J, 즉 60년, 50년 친구들이 나를 만나러 멀리서 찾아와 우리는 꿀보다 더 달콤한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우리가 떨어져 사는 동안 응어리진 사연들 모두 다 쏟아 놓으며 추억어린 이야기는 물론, 긴 세월 통해 터득한 온갖 생활의 지혜를 서로 나누었다. 우리가 할머니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손자, 손녀가 부르면 그제서야 ‘그렇지! 내가 할머니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식한다며 여전히 깔깔댄 철 지난 소녀들의 만남은 노년에 든 내 삶을 축복의 단비로 촉촉히 적신 소중한 시간이었다.

혼자 된 H는 손녀딸이 애인이며 늘 애인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외출하면 할머니가 어디서 누구하고 뭘 하고 있느냐며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서 할머니를 잘 돌봐드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할머니가 잘못 되면 모두 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다 늦게 손녀딸의 시집살이를 받으며 사는 H를 보면서 난 웃음이 절로 났었다.

경상도가 고향인 J의 남편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건만 썩스러

위서인지 전화 한 통 못 하고, 막내딸을 시켜서 계속 간접 접촉을 시도해서 그 웃음을 자아냈다.

형제 없이 자란 나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다며 남달리 혈육처럼 느껴 마음을 다 주고는 섭섭해 하며 헤어지기도 잘 했다는 친구의 평이다. 늙어 갈수록 섭섭마귀의 기승이 더해 미국에 뚝 떨어져 살게 되니 자주 그리움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눈에 보이면 가깝고, 안 보이면 멀어진다'고 말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모든 걸 잘 아는 뿌리 친구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림 없이 내 가슴 속에 머물고 있는 보고 싶은 얼굴들인 것을…….

원래 '친구'란 뜻은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을 일컫는 말, 햇빛처럼 따뜻하고 서로를 비춰주며 힘이 되어 주는 벗을 주변에 둔 것은 정녕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시간적 자유가 생겨 보고싶은 두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지연되었다가 드디어 소원대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모처럼 함께 여행하며 캘리포니아의 쾌적한 날씨와 다양한 지형들을 즐겼다. 사막을 지나갔고, 가장 높다는 헛트니 산의 만년설을 밟았고, 수많은 호수들과 그 주변의 기묘한 석회석 바위들도 감상했다.

곰의 산이라 불리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으며 세계인의 관광지인 몬터레이 (국방대학 한국어 교수로서 수년간 산 곳)에서는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여러 지인들의 따사로운 인정을 맛보며 여행의 피로를 풀 수가 있었다. 로스앤젤레스로 내려오는 길에 들렀던 곳, 미국 속 덴마크인 솔뱅에서 풍차를 바라보며 마신 커피와 빵 맛도 기억에 남으리라.

여행 중 한가지 아쉬웠던 것도 있다. 우리가 일만 피트 넘는 고도

의 눈 덮인 White Mountain 정상까지 꼬불꼬불 자동차로 차멀미까지 하며 올라간 것은 그 곳에 현재 확인된 바로 가장 오래된 나무, 무려 4천6백 년 이상 나이든 브리슬콘 소나무를 만나 그 고색창연한 고목 앞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모조리 겪은(?) 우리들의 기념 사진을 찍을 목적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두 시간 이상이나 경사진 오솔길을 걸어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관리인의 말에 크게 실망하며 하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진정, 어릴 적 친구들과는 언제 만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옛적의 그 꿈 많던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마치 여고 때 합창경연대회에서 불렀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그 유연하며 힘찬 멜로디가 언제나 내 안에 흐르 듯, 그리하여 내 삶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하며, 마치 산소 덩어리를 마신 듯 활력과 푸르름을 되찾게 한다.

어젯밤, 우리가 반 잔의 포도주 잔을 각기 손에 들고 건배한 것은 남은 여생을 하루하루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자는 서로의 다짐이며 굳센 약속이려니…….

나 대신에 내 친구 둘을 공항에 데려가 수속을 마쳐 탑승구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온 남편이 수고와 책임을 다 하고서 하는 말,

“모두들 오랜만에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구려!”

친구들이 컷속말로 일깨웠 듯 저토록 마음 좋은 남편을 곁에 두고도 내가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건 어인 까닭인가?

사랑의 종소리

정순옥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사랑스런 동무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나는 참으로 기쁘다. 그것은 사랑의 종소리다. 종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영혼을 진동시켜 정서를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나의 소중한 친구다. 나는 늘 종소리와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종소리는 내가 이국 땅에 와야 했을 때도, 나를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었다. 그랬던 종소리를 나는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잃어버렸으면 그리워라도 했을 텐데, 어느 때부터인지 종소리는 나에게서 잊혀진



1978년 도미. 1989년 《중앙일보》 이민수기공모 우수상 수상. 2003년 광야 신인문학상 수필 당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존재였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나는 기적적으로 내 정서 친구인 사랑의 종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길을 걸어도 중력을 느끼지 않을 만큼 기쁨이 넘친다.

처음으로 내 영혼을 울린 종소리는 탄일종 소리였다. 육이오 전쟁 후, 삭막한 시골 소쿠리 동네에 살고 있는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읍내에서 공민학교가 생겨 어린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쳐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준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애국가도 배우고, 재미있는 동화도 들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신암교회로 인도되었다. 신암교회에서 처음 들은 탄일종 소리는 나에게 진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준 내 신앙의 길동무다.

초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라는 즐거운 학교 종소리와 함께 생활했다. 희망과 꿈을 주던 학교 종소리를 통해 나는 글읽기와 쓰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또한 그 소리는 나의 사랑하는 글벗이 되었다.

소녀시절은 순정만화나 설화에 나오는 가슴 아리게 하는 에밀레 종소리와 함께 지냈다. 이야기 줄거리야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봉덕사 종을 만들 때, 종소리가 나지 않자 펄펄 끓는 쇠물에 가장 순수한 애기를 집어 넣어서 만드니 그리도 신비하고 그윽한 종소리가 울려 나왔다는 것이다. 그 소리가 너무도 애잔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봉덕사종을 에밀레종이라 더 많이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종이 ‘울린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얼마 전, 어느 사찰 앞에서 망설임 없이 딱 한가지 산 물건이 에밀레 종일 만큼, 나는 애잔한 에밀레 종소리를 무척이나 사랑하나 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울한 내 가슴의 침묵을 깨어 준 나의 친구는,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 청아한 수덕사 종소리였다. 라디오보다도 더 큰 커다란 밧테리를 라디오 뒷면에 고무줄로 칭칭 묶은 소형 라디오를 통해서 좌담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난 후엔 꼭 수덕사의 종소리가 들렸다. 숨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들던 수덕사의 종소리는 지금, 무소유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속에서도 들리는 듯하다.

수녀원에서 들리는 신성한 성당의 종소리에 이끌리어 정결하게 단장된 수녀원 정원에 발을 디딘 일이 있다. 수녀원에서 들었던 그 맑고 성결한 종소리를 나는 해인 수녀님을 통해서 다시 들었다. “인간은 신(神) 앞에 너무도 작은 존재”라는 수녀님의 위로의 말씀 속에서.

밀레 특전을 본 후엔, 나는 <만종>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종소리에 취해서 살았다.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루 일을 마친 후, 석양빛 아래서 두 손을 모우고 감사기도를 드릴 때, 멀리 있는 교회에서 울려퍼져 나오는 평화스러운 종소리에. 때때로 나는 이 종소리 속에 숨어 있는 슬픔까지도 내 삶 속에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도 가까웠던 동무, 종소리여서였을까!

정서의 길다란 끈과 같은 들릴듯 말듯이 이어진 종소리의 여운을 생활에 찌들어 멍멍해진 내 귀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아주 잊혀진 것은 아니었나 보다. 기념품 가게 앞에 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내 손이 종으로 갔던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 인생의 정서 동무인 종소리 속에는 언제나 내가 살고 싶어하는 깨끗한 세계가 있고, 종소리의 오묘한 여운을 들으면 삶의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곤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들리는 낭만적인 종소리건, 애
달게 들리는 종소리건……. 어느 종소리든지 '사랑의 종소리'라 부
르고 싶어하나 보다.

이 시간 나는 수많은 사랑의 종소리들이 화합하여 아름다움의 극
치를 이루면서 멀리멀리 퍼져 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잊어버렸
을 때에도 아랑곳없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서 끈질기게 내 정서를 이
끌어 온 내 친구, 사랑의 종소리를…….

지금도 그 소리는 기쁨과 행복을 싣고 하늘 저 멀리까지 퍼지고 있
다. 땡그렁- 땡앵- 땡-

술 익는 마을

정찬열

달이 밝다. 백중 보름달이다. 저녁을 먹고 뒤향에 나가니 달이 하도 밝아, 달력을 보았더니 칠월 보름이다. 백중은 추석처럼 큰 명절은 아니지만, 숨 가쁘게 농사일을 하던 농부들이 술을 담가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불가에서는 허물을 대중 앞에 들어 말하고 참회를 구하는 날로 삼았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추석으로 가는 징검다리 명절인 셈이다.

이날, 달이 둥실 떠오르면 우리 시골에서는 인근 마을 여자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몰려와 강강술래를 했다. 처녀를 좇아 총각들도, 엄마 따라 아이들도 왔다.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부문 입상. 남부한국학교 교장. 미주한국 문인협회 이사. 저서로는 산문집 『쌍코뿔이를 아시나요』(2006년, 고요 아침)가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chan>

“강가양 수월래에” 느리던 템포가 “뛰어라 뛰어라 뛰구스뛰나 물, 강강 술래”로 빠르게 바뀌면, 흥이 오른 청년들까지 처녀들 사이에 끼어들어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를 했다. 강강술래 소리는 보드라운 밤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번져갔다. 달빛 아래 산천이 아늑했다.

백중 같은 명절은 물론 술 소비가 많은 농번기, 특히 보리타작과 모내기가 겹치는 시기는 거의 집집마다 술을 담갔다. 술밥을 찐 다음 누룩을 섞어 옹기동이에 담아 아랫목에 이불을 씌워 놓으면, 며칠 후 술 익는 냄새가 술술 나기 시작했다. 쌀로 담그는 막걸리가 많았지만, 진달래, 매실, 석류 등 철따라 얻게 되는 꽃이나 열매를 따서도 술을 빚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밀조주를 금하기 때문이다.

백중 무렵이면 연례행사처럼 술 단속원이 마을에 나타났다. 주조장에서 술이 잘 팔리지 않는 마을을 골라 세무서에 부탁을 하면 사람을 내 보낸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술 감독이라 불렀다. 그가 마을에 나타나면 온 마을에 금방 소식이 퍼졌다. 한번은 누군가 동네 마이크로 ‘술 감독 나왔다’고 광고를 한 덕택에 애먼 이장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어느 날, 술 단속을 나왔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술동이를 마을 뒷산이나 대밭 등에 숨기느라 바빴다. 걸리면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딸그만네 할머니도 술동이를 이고 바쁜 걸음으로 숨기러 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마침 골목길을 내려오던 술 감독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순간, 당황한 할머니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손을 놓아버렸다. 술동이는 박살이 나고, 술 건더기가 골목길에 질펀하게 쏟아졌다. 온 골목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술 감독은 닢을 잃은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단속원을 뻔히 쳐다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두 다리를 펴고 “아이고 아이고” 땅바닥

에 퍼질러 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이를 바라보던 젊은 단속원은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한참 후에 “할머니, 안 본 걸로 할 테니 그만 그치세요.” 하고 할머니를 달래기 시작했다. 동네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더 울던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며 코를 뽕 하고 풀더니,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물었다. “참말로 안 본 걸로 해줄 티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메 고마운 거, 그런디 젊은 양반, 다른 사람들은 으짖거시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알았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하고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 마을은 탈 없이 지나갔다. 그 일로 동네사람들은 딸 다섯을 내리 낳자 딸은 그만 낳으라고 이름 지었던 딸그만네집, 그 할머니를 오래 기억하게 되었다.

백중달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한다. 달빛 환한 마당에 모깃불을 피우며,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광경이 아른거린다. 지금도 어느 집 아랫목에는 술 익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막내고모

최미자

오래전, 어린 시절의 막내고모를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친정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에서였다. 할머니 장례식 사진 속에서 두 손으로 눈물을 닦고 서 있던 한복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당시 나도 친정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들고 다니던 때라, 울던 소녀의 사진은 상상도 못할 슬픔이고 충격이었다. 그래서 훗날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궁금하여 어른들에게 여쭙었다. 할머니는 피부가 하얗고 성격이 급한 분이라고 했다. 외출하신 할아버지에게 무엇인가 급히 알리려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별안간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광주광역시 출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화학) 졸업. 월간 『괴물 오브 샌디에이고』 주필 역임. 『현대문예』와 『수필시대』 수필작품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수필문학가 협회 회원. 저서 수필집 『레몬향기처럼』.

나에게는 네 고모가 계셨다. 얼굴이 동그랗고 복스럽게 생긴 큰고모는 부잣집 신랑과 결혼했다. 돈이 넘쳐나던 큰고모는 턱을 깎는 성형수술을 했다. 공교롭게도 얼마 후 큰고모의 운명과 인생행로는 곧 두박질치기 시작했기에 괜한 성형수술로 복을 차버렸다며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내가 어른이 되어 만나 본 고모는 사진에서처럼 복스럽게 생긴 모습이 아니라 턱이 튀어나오고 이상한 얼굴형으로 변해 있었다. 세월 속의 삶에서 우러나는 턱이 몸에 배이면 우리들에게 복은 절로 찾아오는 것 같던데. 요즈음에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성행 중이다. 큰오빠였던 아버지는 큰고모가 어린 시절에 너무 호강만 하고 자란 탓인지 철이 없다며 종종 누이를 나무라곤 했다. 언젠가 시댁 형제들과 재산을 법으로 다투던 모습이 어린 시절 나의 기억에도 찍혀 있다.

마음씨 고운 둘째고모는 요즈음 같으면 키가 커서 인기 짱일 터인데, 그땐 여자가 키가 크면 팔자가 세다며 어른들은 싫어했다. 여학교를 나오고 교양이 있던 고모라서 양반집으로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까닭인지 시댁으로부터 소박을 당했다. 체육대학교의 가난한 노 교수와 재혼하여 금실 좋게 살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남겨두고 한창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고모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잘하는 여러 조카들을 펴 자랑스러워했다. 지난날 종로의 칸막이 독서실에서 끼니를 걸으며 재수하던 나에게도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던 정이 많던 분이라서 늘 그립다.

지성미를 갖추었던 셋째고모는 경상도 사나이와 서울에서 결혼했다. 결혼식 날 내가 꽃바구니를 들고 꽃가루를 뿌리며 둘러리 섰던 인연으로 그 고모의 삶이 늘 궁금했다. 상처한 자리라 전처가 남긴 아들을 키우며 고모는 딸 둘을 낳았다. 통영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자전거를 타던 신식 여인이었다. 젊은 날에는 고숙과 함께 멋을 부리고

값비싼 다이아반지를 끼고 다녔기에 주위의 부러움도 샀었다. 그러나 중년에 고숙의 바람기를 잡지 못해 고모는 화병으로 쓰러졌다. 사랑과 아내의 자리까지 빼앗긴 고모는 반신불수로 지내다가 사십대에 허무한 생을 마쳤다. 빼만 남고 앙상하던 병석의 마지막 고모 얼굴은 평생 내 삶의 무거운 화두가 되어버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던 막내고모는 안쓰러워서인지 세 언니들이 공주라고 불렀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래도록 홀로 살았기에 시중을 들던 효녀였다. 서울의 할아버지 댁으로 들락거리던 몸이 호리호리한 육군 장교를 만나 서른 살 노처녀로 결혼했다. 마산에서 태어나 유복자로 자란 가난한 청년과 삼팔선 전방 강원도 양구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단칸방에 나무궂짝 하나 달랑 놓인 소꿉살림. 술도 좋아하는 고모부는 부하를 사랑하니 회식비로 봉급을 흘랑 다 써버려서 집에 한푼도 안가지고 오던 날도 있었다. 속상한 고모가 “나는 어떻게 살라고?”라며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단다. 손바닥이 아플까봐 고모부가 방석을 들고 요리조리 따라다녔다던 이야기는 두고두고 집안의 웃음꺼리였다. 1960년대 고모부가 이군사령부로 전근되어 온 후로부터 고모네 식구는 여태 대구에 살고 있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사진 속의 막내 고모와 내가 드디어 상봉했다.

평생 아내에게 조잡한 부부싸움 한번 걸지 않던 과묵한 분. 화가 나면 소리 한번 지르면 그만이었다. 혈기 왕성한 요즈음 부부들은 치고 박고 싸우고, 끄덕하면 이혼이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고숙은 늘 골골 아팠기에 고모가 고생도 많았다. 정의로운 군인이어서인지 고모부는 자녀들의 교육에도 호랑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엄격한 회초리 때문에 큰딸이 평생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1980년 대였는데 하루는 동네 총각에게 연애편지를 썼다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다. 눈썹이 새카맣고 예쁜 큰 눈을 가진 아버지를 닮았던 딸도 마음씨가 고왔었건만, 몇 해 전 아버지 뒤를 따라 48살 노처녀로 세상을 떠났다. 무슨 야릇한 운명인지. 세상은 때론 불공평하여 우리 곁에 살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영원히 떠나버린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은 헛되이 살고 있지 않는지 새삼스레 되돌아본다. 추억 겹의 인연과를 지나서 맺어지고 끊어지는 우리들의 묘한 인간관계.

지난번 대구에 들러보니 막내고모는 아들 내외 가족과 다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의 모교가 바라다 보이는 복현 동산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오랜 만에 흐뭇한 밤을 지냈다. 조상의 업보인지 아니면 못된 유전자인지 세 고모들이 고혈압으로 일찍 세상을 뺐지만, 막내고모만은 건강하게 팔순을 바라본다. 세 언니들이 막내 동생을 지켜주는 사랑의 수호신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련들을 극복해서인지 남편을 보내고 가슴에는 자식을 묻고도 고모는 꾹꾹하게 살고 있었다. 고모부랑 생전에는 등산을 다녔고 지금도 집안일을 손수하며 틈틈이 사회봉사를 했다. 시장에 가면 짬 반찬거리를 찾아 몇 바퀴씩 돌아다닌다는 알뜰한 분. 큰 목소리와 경상도 사투리로 수다 떨어도 남의 욕은 하지 않는다.

결코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도 않고, 노인친구들이 얼굴의 검버섯 제거수술을 하라고 권하지만 인공 눈썹만 그려놓았을 뿐 자연 그대로를 고집하는 할머니이다. 그래서 미인은 아니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라며 고모부는 평생 사랑했다 보다.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고모. 머릿속 숫자놀이는 빠른 번갯불이다. 남편의 월급으로 동네 아줌마들과 계를 하며 자녀교육비와 집도 장만하였다. 지금

도 저축했다가 자녀들이 필요할 때면 도와주는 은행 같은 큰 주머니. 요즈음 사람들은 의례히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하건만, 내가 모처럼 귀국했다며 경상도 쪽 친척들을 불러 잔치도 열었다. 막내고모가 콧노래를 부르며 만들어준 정구지 지짐과 전라도식 맛깔스런 김치들. 추억의 웃음꽃들이 방안 가득히 넘실거렸다. 미국에 사는 나를 언제 또 보느냐며 서울 쪽 조카들에게도 연락하여 내가 머물던 성남으로 이차 집합을 시켰다. 우리 모두 검정머리가 파뿌리처럼 되었고 20년만의 해후였다.

세탁기가 빨아주고 전기 요리기구들이 부엌에 가득 찬 시대이건만 호강에 겨워 무너지는 가정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어린 피붙이를 버리는 매정한 엄마와 철없는 가장들. 우리 막내고모처럼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인내로 지켜온 여인들은 이제 구시대의 이야기인가. 가정이 올바로 서야 사회가 되고 나라가 튼튼할 텐데……

환경의 혼란

최순봉

나는 백만 달러가 넘는 건물 하나를 갖게 되었다. 아무리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구매한 건물이라해도, 나와 아내의 명의로 이렇게 큰 건물을 구매하고 보니 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지자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세입자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모두가 나의 경험이 부족하여 건물 구매시 문서상에 꼼꼼하게 따져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했다. 비가 오니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하여 건물 내 구조물을 적시고 젖은 구조물에 곰팡이가 생기니, 이런 사실을 인지(印紙)한 주정부에서 경고를 보내왔



경남 합천 출생. 거창 농림고교 졸업. 과월, 주월 C.I.D파견 근무. 《미주조선일보》 수필 당선. 미주동아일보 시 입상. 서울시 주최 수필 입상. 해외문학 수필 신인상. 미주동포문학상 수필 입상. 저서 『아버지는 왜 아들을 바치려하지 않는가』.

다. 갈수록 태산이었다. 지붕 갈이를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업체들 중 동포가 경영하는 업체가 마음에 끌려 동포 업체를 선택한 것이 나의 또 다른 실수였다. 그는 순복음교회의 기독교 신자였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업체였지만 적당히 해놓고 도망을 가고 나니 그를 찾아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손실만 커 갈 뿐 보상은 전혀 불가능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 몸으로 막아야 했다. 지붕도 내 스스로 고쳐야 했고, 건물 내외의 청소도, 상하수도의 배관도, 에어컨이나 히터가 고장이 나도, 파킹장의 아스팔트가 깨어져도, 모두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한 내 아들은 일세들의 삶의 광장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건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 주인도 중계인도 지붕 수리공도 에어컨 기술자도 모두 한국인 일세대들이었다. 이처럼 동포사회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지만, 속고 속이며 건전하지 못한 관계설정에는 아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다.

나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멧비둘기 한 마리까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비둘기는 에어컨 케이스에 들어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비둘기가 살림을 차리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를 한다 해도, 하필이면 에어컨 콤프레스를 비둘기는 저희 놈의 화장실로 생각하는지 똥을 싸 더럽혀 놓는다.

에어컨 케이스의 구조상으로 비둘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아예 멧비둘기를 잡아서 볶아 먹어 버리리라 하고 결심하고 나니 사십여 년 전 고기가 귀할 때 비둘기를 사냥하여 먹어본 입맛이 살아났다. 이런 결심을 한 다음날 나는 비둘기를 생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둘기를 죽여 요리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나는 비둘기를 푸른 창공으로 놓아주며, “다시는 이 집으로 돌

아오지 마라. 내 결심이 무너질라”하고 경고를 해 두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푸른 창공을 응시하고 있자니,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형님들에게 경작을 맡겨 둔 과수원이 생각났다. 멧비둘기는 사과 나뭇가지에 마른 나뭇가지 몇 개만을 물어다, 엉성하게 걸쳐 놓고, 달랑 알 두 개만을 낳아 자웅의 새끼를 부화시키는 것을 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보며 살았다. 이렇게 서식하는 멧비둘기를 공기총으로 사냥을 즐겼고 내 어머니는 비둘기 고기를 즐겨 잡수셨지만, 설맞은 산탄을 맞고 죽음의 고통을 겪는 비둘기를 바라보고 나는 총을 놓고 다시 그 총을 잡지 않았던 기억이 새로워졌다. 어머니는 “젊은이들은 비둘기 고기를 먹지 마라 비둘기처럼 자녀를 아들과 딸로 짝을 이루어 낳느니라”하셨다. 아마 그때 그 말씀이 고기가 귀한 시절 어머니의 뭇이 작아질까 한 말씀은 아니라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

비둘기가 알을 두 개만, 그것도 자웅으로 낳는 것은 창조의 섭리요, 생존 본능이다. 그리고 그들 야생 조류는 무정란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 무정란이 나오면 품지 않고 둥지에서 철저하게 굴러내어 버린다. 그런데 자연 속에 사는 야생조류가 이런 본능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태의 혼란이며 파괴의 전초다.

금방 놓아준 비둘기의 따뜻한 체온이 나의 손끝에는 아직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놈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만 주는 놈이지만 죽이지 못했다. 나는 돌아앉아 비둘기가 똥을 싸서 더럽혀 놓은 곳을 닦아내며 굴러 내 놓은 무정란을 다시 발견했다. 전에도 몇 번인가 이려고는 새끼 한 배를 쳤건만, 올해도 또 무정란을 낳은 모양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자웅으로 부화되는 비둘기가, 수놈이 모자란 탓은 아닐 게고 내가 모를 무슨 연고가 있겠지만, 자연에 무슨 연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스스로를 죽일 줄 알고, 자연을 파괴할 줄 알고, 곧 후손의 몫을 착취할 줄 아는 생명체가 사람! 그 중에서 사랑을 파괴할 줄 안다는 것은 악마의 저주일 게다.

내가 속임을 받았다는 생각이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속인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죄악은 아니지만 미워하는 것은 죄악이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비둘기의 날개쪽지를 내가 움켜잡고 있을 때는 비둘기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둘기를 놓아주면서 비둘기를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가 나의 월권이었다. 아니 모두가 나의 권리였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결론은 나의 권리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세대인 일세대를 사기꾼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내 아들이 사기꾼의 동일 세대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혼란을 겪고 함께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것이라 믿어 희망을 갖는다.

환경은 언제나 참된 스승과, 공멸을 꾀하는 함정이 공존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우둔한 사람에게는 무덤이 되어야, 무정란을 낳고 한탄하는 암 비둘기의 연고 속에 숨겨진 비밀과 같지만, 지혜는 노력하는 사람의 사고(思考)를 유도하는 빛임을 알기에 노력 없이는 지혜도 없다는 나의 경험을 말해 두련다.